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다

반려견 입양은 인생에서 가장 중대하면서도 가장 만족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려견 입양 시 반려견을 대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반려견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야생동물 가운데 가장 먼저 가축화된 것이 개다. 인간과 개의 교류가 오랜 만큼 기승을 몰락하게 하는 훌륭한 견공(犬公)들의 일화도 많다. 그렇다고 반려견을 사람처럼 대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애정 표현이 될 수 없다. 'myanimals' (myanimals.co.kr)가 반려견을 사람처럼 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소개했다.

■ 반려견을 입양할 때

개는 개로서 욕구가 있다. 동물이라고 털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과 개는 각각 자기 자리가 있다는 말이다.

개도 인간처럼 외로워하고 사랑을 주고받는다. 사회적이고 감성적이지만 인간과 큰 차이점도 있다. 초콜릿이나 포도처럼 사람이 먹는 맛있는 가운데는



개에게는 크게 해로운 것이 있다는 사실에서도 사람과 개의 차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 반려견을 사람처럼 대하지 말 것

반려견을 사람처럼 대하면 다음과 같은 나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우두머리의 필요성**: 무리의 우두머리를 따르는 개를 사람처럼 대하면 혼란에 빠진다. 반려견이 우두머리를 자칭해서 보호자(견주)와 갈등하거나 무엇보다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게 된다.

▶**정체성 혼란**: 사람처럼 대우를 받고 '인간화' 된 개는 정체성과 성격에 문제가 생긴다. 다른 개들을 괴하고 보호자에게 죽을 것처럼 매달린다. 개성을 잃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다른 개나 무관심한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한다.

▶**불안**: 다른 동물과 사람들에 대한 사회화는 반려견의 발달과 안정성에 무척 중요하다. 사람의 사랑만 받고 다른 개들과의 사회성이 부족한 반려견은 특정 상황에서 부적절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

■ 반려견을 대할 때 중요한 요소

반려견은 변화를 두려워할 수 있다. 인간화된 반려견은 보호자가 며칠 보이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과잉보호를 받은 아이처럼 보호자에게만 매달리며 보호자가 없으면 지나치게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인간화된 반려견은 친구, 지인 등 다른 사람이나 애견 호텔처럼 생활하던 환경이 아닌 곳에 맡기면 적응하지 못한다.

반려견을 사람처럼 대하지 말하는 말은 반려견에 대한 사랑을 접으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사랑을 주되 반려견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는 사람이 아니라 짐을 기억하면 된다. 가족이 각자의 위치를 알아야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반려견을 사랑한다고 우두머리처럼 받들어서는 안 된다. 반려견이 강인하고 개성 있으며 보호자와 환경에 적응하며 보호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려면 반려견이 가족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과잉 애정 행동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사진=shutterstock



더 이상 잃지 마세요! 탈모 두피 케어 지금 시작하세요!

E.PPO 두피 SPA에서는 미국에 최초 도입한 도히스파를 통하여 두피 클리닉은 물론 비듬, 각질, 탈모를 케어하고 두통 및 스트레스 완화와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 신제품 헤드스파, 미국 최초 도입!

Bubble Spa
✓ 딥 스케일링 Spa

프리미엄 두피케어
도히-스파

좋은 한약재를 사용하여 두피, 비듬, 각질을 케어합니다!



E.PPO

예약 및 문의 tel. 213. 278. 1210
1122 N Brookhurst #B Anaheim CA 92801
M덴탈 치과 건물 살롱Modern_Dos 내/사랑의 교회 맞은편

Step1 두피 상태 확인 → Step2 두피 증상별 케어 → Step3 버블 딥스케일링 스파 → Step4 도히스파

FREE 무료 두피 상담 및 진단